

李 “민주정부 4기 책임질 것”...金 “대선후보들 적극 돕겠다”

이낙연·김부겸 당권경쟁 본격화

이, 현충원 참배하고 7대 약속 발표

봉하마을 찾아 권양숙 여사 접견

김, 강원도 방문 기자 간담회

“대권 후보 아닌 당대표 뽑는 자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20일 8·29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등록을 한 뒤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등 본격 경선에 돌입했다. 이들 당권주자는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의식해 눈에 띄는 행보와 공약 발표보다는 차분한 가운데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표발을 다졌다. 특히 이 의원은 큰 틀에서의 비전을 제시한 뒤 향후 각 지역을 돌며 현안 사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지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여의도 당사를 찾아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난극복 희망정당 이낙연의 7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7대 약속은 후보등록 서류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7대 약속은 민주정부 4기를 준비하는 책임정당, 코로나 국난극복하고 민생해결하는 유능한 정당, 공정사회 및 국민안심사회를 이끄는 든든한 정당,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정당, 국민을 섬기고 당원과 소통하는 겸손한 정당,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분권 정당, 한반도 평화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평화정당이다.

7대 약속을 통해 차분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장점을 강조했고, 국무총리와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당을 이끌고 정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코로나 19 여파로 대규모 모임 등을 통한 지지세 확보보다는 차분한 선거 운동을 통해 비전과 정책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를 접견했다. 접견 선물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퇴임식을 마치고 고향에 내려간 날 봉하마을에서 주민들과 나눠 마신 대강막걸리를 준비하기도 했다.

최근 광주지역에 선거 조직을 꾸리는 등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의 이날 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년 전 수도권 3선 지역구를 떠나서 민주당의 힘진 대구로 내려갈 때와 같은 마음으로 당 대표에 출마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큰 지지와 성원을 얻은 민주당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눈높이에서 당을 재정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 등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할 4개의 큰 파도가 있다”며 “특히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이에 앞서 당헌 준수 여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절차 등 두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는 대권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라며 “맞아야 할 화살은 당 지도부가 맞고 대선 후보들은 훌훌하게 자신의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피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강원도소방본부를 방문해 현안인 동해안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 보강과 동해안 통합지휘 조정통제센터 구축에 힘을 보태 달라는 건의를 청취했다. 김 전 의원은 춘천시 흥천군, 횡성군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지난해 태풍 ‘타미’ 피해지인 태백시와 삼척시의 수해 복구 현장도 방문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0일 춘천시 강원도소방본부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 악화에 부담...문 대통령, 총리 의견 듣고 그린벨트 혼선 매듭

그린벨트 보존 결단 배경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이 20일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배경에는 이 사안을 둘러싼 당정청의 메시지 혼선 장기화가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그린벨트 이슈는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특단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서 시작했다. 이에 당정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거론되자 곧바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던 중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해 논란이 확대됐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나 서울시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잠룡들이 반대론 또는 신중

론을 퍼는 등 엇박자 양상이 계속됐고, ‘여권 내에서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점차 거세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총리가 적극적인 조율 역할을 한 점도 눈에 띄었다. 정 총리는 최근 홍 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에게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정 총리는 통일된 ‘반대’ 의견을 들고서 이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낙연 오늘 광주 찾아 ‘지역 메시지’ 발표

후보 등록 후 첫 지방 공식 일정

지역현안 해결·발전 전략 등 답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21일 ‘민주당 텃밭’인 광주를 방문한다.

20일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여의도 당사를 직접 찾아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 의원은 이날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발전 전략 등을 담은 ‘지역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광주에서 이 의원이 어떤 지역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광

주시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론 등을 청취하고, 자신의 당 대표 출마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망월동으로 자리를 옮겨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지역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당 대표 선거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지지자들 모임에는 지방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 지역 방송사 토론회에 참석한 뒤 지역 언론사 사장단들과 만찬을 갖고 상경할 예정이다.

그는 광주 방문에 이어 22일 강원 춘천, 23일 인천, 24일 제주 등 지역 민심 훑기를 이어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3.3% vs 18.7%...족쇄 벗은 이재명, 이낙연 바짝 추격

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윤석열 14.3% 3위·홍준표 5.9%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다소 하락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23.3%, 이재명 경기지사는 18.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선호도 격차는 4.6%포인트

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두 사람의 선호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처음 들어선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 4월 이후 하향곡선을 그렸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 선호도는 4·15 총선 당선 직후인 지난 4월 말 40.2%를 기록한 뒤 5월 말 34.3%, 6월 말 30.8%로 계속 떨어졌다. 이번엔 20%대 초반으로 밀리면서 불과 석 달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난 형국이 됐다.

반면 이 지사는 4월 말 14.4%, 5월 말 14.2%, 6월 말 15.6%로 큰 차이가 없다가 지난 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들이고 기자회견

생한 직후 3%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아권에서 대망론을 불러일으키는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4.3%로, 이 지사의 뒤를 이었다. 6월 말 조사(10.1%)보다 4.2%포인트 오른 수치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윤 총장의 경우 아권 내에 뚜렷한 차기 주자가 없는 가운데 지지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미래통합당 홍준표 의원은 5.9%, 황교안 전 대표는 5.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7% 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99.9% 해남군

사전에예약제 실시

즐거롭고 여유있는

해남 연도랜드 관광

해남군

달마고도 걷기 행사

08.29.까지 매주 ☎ 미항사 일주문 앞

예약문의 061-530-5157

송호 해변 여름이야기

08.09.까지 매일 송지면 송호해수욕장 일원

예약문의 061-530-5158 www.songhobeach.kr